

기억을 연대로...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관장 영면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침묵 대신 증언 선택한 삶 5·18민주화운동으로 자식 잃은 어머니들과 동고동락

안성례 초대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평생을 함께하며, 국가폭력 피해자 유가족의 아픔을 기억과 연대의 힘으로 끌어올린 상징적 인물이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남겨진 상처를 개인의 비극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의 책임으로 환기시키는 데 헌신한 삶이었다.

이러한 사회의식은 어린 시절 형성됐다. 그는 1938년 3월 11일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이 독립운동가들을 은밀히 후원하던 안씨 집성촌이었기 때문이다.

성장한 그는 전남대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신안 간호고등학교에 진학, 이후 광주 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했다.

특히 5·18 당시에는 계엄군의 발포로 실려 오는 부상자들의 치료하고, 부족한 피를 채우기 위해 직접 헌혈에 참여하는 등 헌신을 보였다.

5·18 이후 안 관장은 오랜 세월 침묵과 애곡 속에 방치됐던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남편 고(故) 명노근 교수가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며 시민수습위원으로서 활동, 옥고를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진상규명 투쟁에 함께하게 됐다.

그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월어머니집’ 설립과 운영의 중심에도 섰다. 오월어머니집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기억의 공간이자 증언의 현장이었고, 고인은 그 공간의 초대 관장으로서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광주시의원으로도 활동한 그는 5·18특별위원장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을 이끌기도 했다.

그는 “5·18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라는 신념을 평생 놓지 않았다. 진상 규명이 미진하거나, 왜곡 시도가 있을 때마다 거리와 강단, 추모의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각



고 안성례 초대 오월어머니집 관장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추모제에서 헌화하고 있는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왼쪽 두번째)

종 추모식과 증언회, 시민 토론회에 참여해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고, 국가의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안 관장은 5·18 희생자 유가족들이 ‘피해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의 증언자이자 역사의 주체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머니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기록하도록 독려했으며, 이를 통해 5·18의 기억이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공적 기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관장은 오월어머니집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대에도 힘썼다. 제주4·3,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국가폭력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아픔의 역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다리를 놓았다. 그는 서로 다른 상처들이 연결될 때 사회는 비로소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힘을 갖게 된다고 믿었다.

주변에서는 그를 “말보다 삶으로 증명한 어른”, “유가족 곁을 끝까지 지킨 사

람”으로 기억한다. 개인의 슬픔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끌어올리고, 기억을 행동으로 바꾼 그의 삶은 5·18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였다.

안 여사 장례는 고인 유지에 따라 가족장으로 광주 천지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0일 오전 11시30분. 장지는 국립 5·18민주묘지다. 자녀로는 명윤석·혜원·규원·지원·진(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씨가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7:40	달림	12:52
맑음	17:29	달림	01:35



광주	☀️	3~12
목포	☀️	6~11
여수	☀️	6~13
순천	☀️	2~13
구례	☀️	-1~12
광주	☀️	3~13
신도	☀️	5~14
흑산도	☀️	8~12
고흥	☀️	1~14
진도	☀️	5~13

목포	미물(고)	08:45 / 20:57
	셀물(저)	01:31 / 14:05
여수	미물(고)	03:48 / 15:59
	셀물(저)	09:42 / 22:28



광주 광산구가 지난 25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시민과 연말의 따뜻함을 나누는 '12월 가장 예쁜 역'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박영규 광산구청장과 시민들이 새해 희망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선물 상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물들인 빛과 문화 향연 광주송정역 광장 '12월 가장 예쁜 역' 축제 성료

지난 25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진행된 '12월 가장 예쁜 역'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산타마을'을 테마로 광장에 조성된 빛조형물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아동 중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수능 시험을 마친 청소년, 시민들과 함께 희망과 약속의 의미를 나누는 '선물 상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지역 청소년의 재능을 발산한 성탄 공연, 댄스팀 공연과 성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패션쇼도 눈길을 끌었다.

하얀 눈과 아름다운 불빛 아래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약속하는 '프러포즈 이벤

트'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보컬 가수 나비의 성탄콘서트는 연말을 맞은 시민에게 감동과 따뜻함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영규 광산구청장은 "12월 가장 예쁜 역"으로 거듭난 광주송정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하얀 눈과 함께 문화 공연을 즐기며, 연말 따뜻함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일대를 시민이 머무는 겨울철 대표 명소로 만들기 위해 '산타마을'을 테마로 다양한 빛조형물로 가득한 '12월 가장 예쁜 역'을 조성, 운영 중이다. 빛 조형물은 내년 1월까지 시민을 맞는다.

글·사진·취재기자 bluesky@

편의점서 담배 훔치고 폭행

만년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이를 제지하는 점수를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재판장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5일 오전 11시 4분 광주 서구 한 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와 라이터를 훔치고, 이를 제지하는 점수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와 600원 상당의 라이터를 갖고 나오려다가 B씨에게 붙잡혔다. 들고 있던 담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조사 결과 A씨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임형진 기자

'영하권 추위 본격화' 한랭질환 비상 병오년 첫 해, 오전 7시26분 독도서 먼저 뜬다

장성서 올해 첫 사망자...최근 4년 지역 78명 발생

최근 전남 장성에서 올해 첫 한랭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한파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기상청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 기준 적설량은 장성상무대 5.5cm, 영광군 1.6cm, 나주 1.5cm, 담양 1.4cm, 무안 운남 1.4cm, 화순 백야면 1.3cm 등을 기록했다.

광주와 장흥, 무안 등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졌다.

기상청은 26일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6.1도~영하 0.3도, 낮 최고기온은 최고 기온 영하 0.3도~2도에 머물렀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질 경우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매년 겨울철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2022~2026년) 절기·2022년 12월~2025년 2월·2025년 12월 1~23일)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모두 78명

고흥 외나로도 오전 7시36분·광주 오전 7시41분 내년 3월3일 개기월식...크리스마스 이브 슈퍼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 해는 오전 7시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첫 일출은 독도에서 오전 7시26분 가장 먼저 관측된다. 이어 오전 7시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남해안과 서해안, 내륙으로 차례로 해가 떠오른다.

지역별로는 고흥 외나로도 오전 7시36분, 완도 보길도 오전 7시40분, 광주 오전 7시41분, 무안 도리포·영광 가마미 오전 7시43분, 신안 거제도·흑산항 오전 7시45분, 신안 흥도 오전 7시46분 순이다.

2025년의 마지막 해넘이는 신안 거제도에서 오후 5시40분으로, 가장 늦게까지 일몰을 볼 수 있다. 육지에서는 진도 세방낙조가 오후 5시35분으로 가장 늦은 일몰 지점으로 꼽혔다.

천문연구원은 이번 일출·일몰 시각이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라고 설명했다.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실제 일출 시각은 더 빨라지며, 해발 100m에



에정돼 있다. 3월 3일 정월 대보름에는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진행된다. 이날 오후 6시49분 48초 부분식이 시작되고, 오후 8시44분 개기식에 들어가 오후 8시33분 42초 최대에 이른다. 개기식은 오후 9시3분 24초 종료되며, 부분식은 오후 10시17분 36초에 마무리된다.

이번 개기월식은 동아시아와 호주, 태평양, 아메리카 지역에서 관측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달이 뜨기 전부터 월식이 시작돼 총로 시점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2월 17일 금환일식, 8월 13일 개기일식은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다.

또 1월 사분의자리 유성우, 8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12월 쌍둥이자리 유성우 등 3대 유성우도 예년과 같이 관측할 수 있다. 6월 16일 저녁부터 18일 오후 8시 30분까지는 금성·목성·수성·달이 한꺼번에 보이는 장관도 밤하늘에 펼쳐질 예정이다.

내년에 가장 큰 보름달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뜨며, 가장 작은 보름달은 5월 31일에 관측된다. 두 보름달의 크기 차이는 약 14%에 달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광산대교 옆 보행로 붕괴 인명 피해는 없어...통행 제한

광주 광산대교 옆 보행로가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0분께 서구 덕흥동 광산대교 옆 보행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이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너진 구간은 보행로를 잇는 연결 램프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보행로는 2012년 국도교통부 4대 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광산대교와 연결돼 있다.

서구와 광주종합건설본부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고 인근 파크골프장을 잠시 휴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광주종합건설본부,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